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2년 4월 29일 금요일
www.sportsdonga.com



8년 공백 깨고 악녀 열연한 '엄마' 오연수

"오연수를 지우는게 매 순간의 행복이죠"

종영한 '군검사…'서 여사단장역
난생처음 악역…수없이 망설였죠
입대한 큰아들은 군 생활 조언도
엄마가 되고서야 찾은 연기 재미
촬영장 가는 길, 언제나 즐거워요

"지난 8년은 오롯이 '엄마'로서의 행복을 누렸죠."

배우 오연수(51). 가수 겸 배우 손지창의 아내로도 유명하다. 그 이전에 두 아들의 엄마다. 26일 종영한 tvN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그의 모습이 유독 반가웠던 이유는 8년 만의 연기 복귀작이라는 점에서다.

오연수는 2014년 MBC '트라이앵글'을 끝으로 25년간 누빈 안방극장을 떠나 두 아들의 미국 유학길을 따라갔다. "뒤늦게라도 엄마로서 '올인'하고 싶은 마음"에서다. 밀려드는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출연제의도 포기했다. 그러나 "후회도 없고, 다시 돌아가도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

긴 공백을 끝낸 이유도 다름 아닌 "두 아들"이다. 올해 각각 23세와 21세가 된 아들이 "더 이상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하지 않은 나이가 됐다" 싶어 마음 놓고 다시 대본을 들었다. '아들 바보'가 따로 없다. 그는 "내가 봐도 못 말린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 "아들이 용기 북돋아 줘"

28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화사한 노란빛 원피스를 차려입었다. 극중 육군 최초 여자 사단장 역을 연기하는 내내 군복만 입은 탓에 "오늘만은 한껏 꾸미고 싶었다"고 말했다.

"권력을 위해 남의 다리를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잘라내는 사이코패스였어요. 난생처음 해보는 악역이어서 수없이 망설임 끝에 용기를 냈죠. 마침 큰아들이 입대했을 때라 군 소재에 관심이 갔죠. 아들이 '엄마가 투스타 사령관 역할이라고?'하면서 껄껄 웃다가도 군대 얘기를 해주면서 독려해줬어요."

8년 만에 연기 활동을 재개하는 만큼 "매 순간 신인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첫 촬영 날, 배우들과 스태프들 앞에서 고개를 꾸벅 숙이며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외쳤어요. 남편은 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스타일이라 제 결정을 존중해줘요."

● "연기의 재미 뒤늦게 찾았죠"

데뷔 이후 33년 중 '황금기'를 "30대"로 콕 집었다. 1998년 손지창과 결혼한 후 이듬해와 2003년 두 아들을 낳으며 "인생이 달라졌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18세에 데뷔해 20대 내내 돈을 벌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하나도 즐겁지 않았죠. 그러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연기의 재미를 찾았어요. 50대가 된 지금 오히려 연기가 어려워요. 어딜 가도 '최고참 선배'가 되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부담이 커져요."

그래도 "촬영 현장에 가는 것은 여전히 즐겁다"고 돌이켰다. 이제는 기회가 닿는 대로 드라마와 영화에 계속 출연할 생각이다.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물었을 때 '응'이란 답이 돌아와야 해요. '연기 못 한다'는 말은 절대 안 듣고 싶어요. 저의 한계까지 최대한 노력할 거예요. 오연수를 지워내고, 제가 맡은 캐릭터로 불리는 게 목표예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26일 종영한 tvN 드라마 '군검사 도베르만'에서 강렬한 악역을 선보인 배우 오연수가 28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카페에서 열린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키움 안우진의 초반 페이스가 범상치 않다. 올 시즌 5경기에서 삼진 40개를 잡았다. 지난해 두산 외국인투수 미란다가 세운 역대 단일시즌 최다 삼진 225개를 뛰어넘을 기세다. 스포츠동아DB

159km '삼진 머신' 안우진 미란다 225K 신기록 넘나

〈KBO 단일시즌 최다 삼진〉

압도적 구위로 경기당 8K…최대 240K 가능
풀타임 선발 첫 해, 건강한 시즌이 최대 관건

대기록이 1년 만에 깨질 수 있을까.

키움 히어로즈 우완 안우진(23)의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초반 삼진 페이스가 심상치 않다. 안우진은 올 시즌 5경기에서 2승2패 평균자책점(ERA) 2.25를 기록하며 40개의 삼진을 잡았다. 경기당 삼진은 무려 8개. 압도적인 구위로 타자들을 찍어 누르고 있다.

연이은 호투에 적장의 감탄사가 나오기도 했다. 안우진은 26일 대전 한화 이글스전에서 6이닝 2실점 11삼진 호투로 자신의 한 경기 최다 삼진 기록을 새롭게 썼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9월 23일 NC 다이노스전에서 세운 10삼진이었다.

카를로스 수베로 한화 감독은 하루 뒤인 27일 취재진을 만나 "지금 국내투수들 중에서는 안우진이 최고 레벨"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안우진이 26일 경기서 기록한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9km. 외국인 감독이 보기에도 그의 재능은 유독 압도적이었다.

안우진이 올해 등판한 경기에서 가장 삼진을 적게 잡은 것은 20일 SSG 랜더스전이다. 5번의 등판에서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도 6이닝 4실점 5삼진 투구를 해 크게 무너지진 않았다.

거침없는 그의 'K' 행진은 1년 만의 삼진 기록 경신을 기대케 하고 있다. 지난해 두산 베어스 외국인투수 아리엘 미란다가 세운 단일시즌 최다 삼진(225개)이다. 미란다는 2021시즌에 28경기에 나서 14승5패 평균자책점 2.33을 기록하며 225삼진을 기록했다. 종전 단일시즌 최다 삼진 기록은 롯데 자이언츠 소속이던 최동원이 1984년에 마크한 223삼진이었다.

안우진은 토종투수로 KBO 단일시즌 최다 삼진 타이틀을 되찾아올 페이스에 올랐다. 현재 K 행진을 풀타임 선발로 유지할 수 있으면, 미란다의 225삼진 기록도 충분히 노려볼만 하다. 144경기 풀 시즌을 치르는 국내 선발투수들은 대개 30경기 안팎의 선발등판 기회를 맞는다. 현재 페이스라면 200삼진은 충분히 넘어서고, 최대 240삼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최대 관건은 당연히 건강한 몸이다. 안우진은 기량 면에선 검증을 마쳤으나 아직까지 풀타임 선발을 뛰어 본 경험이 없다. 올해가 첫 번째 도전인 셈인데, 대기록 달성을 위해서는 '건강한 선발투수'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CJ WELLCARE

100% 국산 저온농축

속편하게 양배추 믿고먹는 CJ제일제당

저온박막농축기술로 맛과 향이 깔끔한
CJ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

• 식품유형 : 과채음료 • 원산지 : 양배추착즙농축액(양배추:국산), 사과농축액(사과:국산), 브로콜리농축액(브로콜리:국산), 산사나무열매농축액, 매실농축액



01 제주산 양배추와 100% 국내산 원료만을 사용합니다.
CJ제일제당 한뿌리 양배추&브로콜리 골드는 국내산 100% 원료만을 사용했으며, 자연의 해풍을 받고 자란 제주산 양배추만을 사용하여 더욱 맛이 좋고 안심하며 드실 수 있습니다.

02 CJ 저온박막농축기술을 건강즙에 적용하여 양배추만의 비타민U 함유량을 높였습니다.
저온에서 열의 접촉은 최소화하며 농축하는 기술을 통해, 양배추 특유의 비린 맛은 없애고 편안한 속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U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03 양배추와 함께 속을 위한 브로콜리, 산사나무 열매를 담았습니다.
예로부터 속을 위한 재료로 널리 사용되었던 브로콜리, 산사나무열매를 함께 배합하여 CJ연구소만의 노하우를 더했습니다.

04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양배추의 맛을 잡았습니다.
국내산 사과와 매실로 최고의 배합을 찾아내어 맛과 향이 매우 깔끔하고 먹어보면 다릅니다.

특별이벤트 ▶ 금액대별 푸짐한 사은품 증정 (15만원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CJ제일제당 건강카운셀러 무료상담 및 주문 080-091-9988